

MEMBERSHIP TREND

회원사 동향

(주)젤라인, 고속 전력선 통신 제품 본격 수출

(주) 젤라인(대표 이기원)이 중국전망공사의 통신자회사인 파이버링크(중전비화)에 10Mbps급 PLC 제품 6000회선을 수출했다.

이 고속 PLC기술은 지난 99년 이후 산자부의 중기거점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전기연구원과 젤라인 등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이번 파이버링크에 총 6000회선 중 1차 4000회선의 수출로 중국 고속 PLC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돼 앞으로 중국전역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 국가전망공사와 지방의 30여개 전력회사들이 PLC 기반의 인터넷 통신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편으로 고속 PLC가 앞으로 중국의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젤라인의 이번 중국 수출은 지난 3월 중국 국영전력회사와 고속 PLC 상용화 프로젝트 공급계약에 따른 60만 달러 규모로 젤라인은 지난 2001년 11월에도 파이버링크에 12회선을 최초로 수출한 이후 2002년 12월 같은 회사에 1000가구 분량을 공급한 바 있다.

젤라인은 장기적으로 전화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농촌 산간지역에 전력선 전화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으로, 앞으로 옥내 홈 네트워크와 옥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에 동시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제품을 앞세워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 유럽 등 브로드 밴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선박용 동기 발전기 세계일류상품 인증

현대중공업(주)(대표 유관홍)가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총 7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세계일류상품' 제도가 시작된 2001년에 선박(유조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2002년에 대형디젤엔진과 LNG선, 2003년에 굴삭기 및 대형엔진용 크랭크샤프트가 선정되었으며, 2004년에 선박중형엔진과 500kW이상 '선박용 동기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 for Marine application)'가 또 다시 선정됐다.

지난 1978년 선박용 동기발전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연간 약 300여척 분(약 900대)을 생산, 현재까지 8,800여대의 발전기를 전세계 선박의 주전원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41.5%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용 동기발전기는 선박의 주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육상에서 사용되는 발전기와는 달리 절대적인 품질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바, ABS(미국), GL(독일), LR(영국), BV(프랑스), DNV(노르웨이)등의 각종 국제 선급 규격이 적용되며 매 호선별로 인증서(Class 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납품되고 있다. 선박용 동기발전기는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의 유명 조선소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세계 유수의 디젤 엔진 업체를 통하여서도 해외 주요 선박에 탑재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고객들의 현대 발전기 선호는 풍부한 실적으로 입증된 신뢰성과 품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산업자원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이내 이거나, 동종 상품 수출실적 1위 또는 동종 상품 수출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 인증서를 토대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화전기공업(주), 임금협상 무교섭 시대 '활짝'

중견 중전기 제조업체인 이화전기공업(주)(대표 김옥동, 임창빈)가 임금협상 무교섭 시대를 열었다.

이화전기 노사는 임창빈 대표와 김선영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노사 무교섭 임금타결 조인식'을 가져 ▲기본급 6.3% 인상, 상여금 10% 인상(평균임금 대비 5.8%) ▲매출목표 달성시 기본급 기준 100% 성과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화전기의 임금협상 무교섭은 최근 내수침체 속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계의 노사관계 정립에 좋은 선례로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협상보다는 노사가 생산성 향상에 집중,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